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장민선¹ · 강은진¹ · 조미영² · 최계선³ · 홍영표² · 서갑종² · 김건희^{1*}

¹덕성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³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

Survey o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on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Min-Sun Chang¹, Eun-Jin Kang¹, Mi-Young Cho², Gye-Sun Choi³,
Young-Pyo Hong², Kab-Jong Seo², and Gun-Hee Kim^{1*}

¹Dept. of Food & Nutri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132-714, Korea

²Bureau for Food Safety and ³Bureau for Risk Prevention Polic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Seoul 122-704,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onsumer awareness on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The questionnaire explored status for confirmation as imported foods, consideration factors when imported foods were marketed, ways for finding imported food safety information, people responsible for problems in imported foods safety management, and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items. Answers to 106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lus 8.0. The principal results were as follows: 35.7% of respondents always confirmed whether it was imported food. The most important imported foods marketed is children food. 55.1% of respondents think inspectors have responsibility for problems of imported foods safety managemen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improvement of safety is reinforcement of quarantine. The providing of restricted information only after security problem occurs was the reason for non-satisfaction of safety information.

Key words: imported food, safety, consumer survey, management

서 론

식품의 생산, 저장 및 수송수단의 발달과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대부분의 식품이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세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수입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수입식품은 국내식품과는 달리 국내에 들어와 판매되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결과, 인위적인 유통기간 연장의 가능성과 함께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1-3). 매년 수입식품은 증가하며 수입 품목도 125개국, 3,000여 품목으로 다변화하였으며, 2000년도의 수입건수 133,761건이 2007년 270,163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가공식품의 검사 건수의 증가율이 높다(4). 선진국의 경우는 수입식품의 제배단계에서부터 제조, 가공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의 통관 시에는 감시, 검사, 관리를 통하여 적합한 식품만 반입시키고 있고, 통관된 수입식품이라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입 후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식품위생법 관리

및 운영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정보관리, 수집체계, 수입식품의 사후관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체계가 미약하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활용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과 전문 검사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올바른 구입과 소비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와 함께 발암물질과 살충제 그리고 기형유발 물질 등 다량의 농약과 방사선 조사, 성장호르몬 및 항생제 잔류,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5,6)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7-11). 수입식품의 식탁점유율이 열량대비 약 65%, 가공식품 원료 의존도 80% 이상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요구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최근 수입식품에서 이물혼입 발생 및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해식품의 수입

*Corresponding author. E-mail: ghkim@duksung.ac.kr
Phone: 82-2-901-8496, Fax: 82-2-901-8474

을 막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시기적절한 검역은 물론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정확히 실시되어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 확립이 필요하다(5). 식품안전의 문제는 생산자, 소비자, 식품가공업자, 언론, 정부 그리고 학자들이 함께 풀어야 할 복합적인 문제이며, 실제적 위험과 소비자의 인지된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해성 논란의 주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불안요인을 분석하고, 유해 수입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수입식품의 이용실태, 유통 실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 용인, 천안,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강원도에 거주하는 20~50대 이상 연령층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실시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200부를 배부하여 1065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88.8%), 이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비자 교육자를 대상으로 자가 기재하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함께 수입식품에 관한 인식도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는 성별, 나이, 월수입 정도, 교육정도, 가족형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보기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수입식품에 관한 인식도 조사에는 식품을 구입할 때 수입식품과 국산식품과의 확인여부, 수입식품의 범위에 대한 인지도, 수입식품을 구입할 경우 가장 고려하는 사항, 수입식품의 위해 요인 중 가장 큰 것, 수입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취하는 행동, 정부가 제공하는 수입식품의 안전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보를 위한 홈페이지 방문여부, 수입식품 안전관리 문제 발생 시 가장 큰 책임소지의 대상, 수입식품 중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 그리고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점 등의 내용으로 총 12 문항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조사된 자료의 처리는 덕성여자대학교 통계연

구실을 통하여 객관적인 통계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으며, S-Plus 8.0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과 평균값을 구하고, 각 변수에 따른 유의성 검증은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으며, 응답자 중 남성이 25.9%, 여성이 74.1%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는 20대 18.8%, 30대 30.3%, 40대 33.7%, 50대 이상 17.2%로 주로 구매력이 있는 30대 이상의 소비자 비율이 높았다. 경제 수준을 보면 월수입 100~199만원의 응답자는 16.0%, 200~299만원 24.9%, 300~399만원 22.8%, 400~499만원 17.0%, 500만원 이상은 17.0%이었으며, 교육 정도로는 고졸 26.6%, 대졸 52.5%, 대학원 이상 16.2%로 고학력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수입식품 확인에 관한 인식도

수입식품 확인에 관한 요인별 분석은 Table 2와 같으며, 식품 구입 시 남성 50.0%, 여성 45.0%가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 국산식품과 어느 정도 확인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반드시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약 46%의 남성과 여성 모두 수입식품 구입 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남성보다는 여성이 수입식품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경향이 높았고, T-test로 통계처리 한 경우 성에 따른 수입식품의 확인 정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01$). 연령별로 보면 30~40대는 20대와 50대 이상에 비해 수입식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271	25.9
Female	776	74.1
Age		
20~29	198	18.8
30~39	320	30.3
40~49	356	33.7
≥50	182	17.2
Monthly income (1,000 won)		
<100	25	2.4
100~199	165	16.0
200~299	257	24.9
300~399	235	22.8
400~499	175	17.0
≥500	175	17.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8	2.7
High school	275	26.6
University	563	52.5
≥Graduated university	167	16.2
Total number response	1043	100

Table 2. Number of times consumers check before purchasing imported food

Characteristics		Frequency (%)				Total	x ² -test
		Never confirm	Seldom confirm	Sometimes confirm	Always confirm		
Gender	Male	14 (5.00)	75 (28.00)	136 (50.00)	46 (17.00)	271 (100)	x ² =80.728 df=9 p=0.000 (<0.001)
	Female	11 (1.00)	91 (12.00)	347 (45.00)	326 (42.00)	775 (100)	
	Total	25 (2.00)	166 (16.00)	483 (46.00)	372 (36.00)	1046 (100)	
Age	20~29	9 (5.00)	25 (13.00)	110 (56.00)	54 (27.00)	198 (100)	x ² =58.330 df=9 p=0.002 (<0.05)
	30~39	3 (1.00)	42 (13.00)	130 (41.00)	145 (45.00)	320 (100)	
	40~49	3 (1.00)	54 (15.00)	162 (46.00)	137 (38.00)	356 (100)	
	≥50	10 (6.00)	47 (25.00)	82 (45.00)	43 (24.00)	182 (100)	
	Total	25 (2.00)	168 (16.00)	484 (46.00)	379 (36.00)	1056 (100)	
Monthly income (1,000 won)	<100	7 (28.00)	4 (16.00)	6 (24.00)	8 (32.00)	25 (100)	x ² =122.138 df=9 p=0.000 (<0.001)
	100~199	4 (2.00)	34 (21.00)	83 (50.00)	44 (27.00)	165 (100)	
	200~299	5 (2.00)	54 (21.00)	123 (48.00)	75 (29.00)	257 (100)	
	300~399	6 (3.00)	43 (18.00)	115 (49.00)	70 (30.00)	234 (100)	
	400~499	2 (1.00)	22 (13.00)	69 (39.00)	82 (47.00)	175 (100)	
	≥500	1 (1.00)	12 (7.00)	72 (41.00)	90 (51.00)	175 (100)	
Total	25 (3.00)	169 (16.00)	468 (45.00)	369 (36.00)	1031 (1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 (3.00)	3 (11.00)	14 (50.00)	10 (36.00)	28 (100)	x ² =56.400 df=9 p=0.006 (<0.05)
	High school	12 (5.00)	61 (22.00)	146 (53.00)	56 (20.00)	275 (100)	
	University	8 (2.00)	76 (13.00)	228 (40.00)	251 (45.00)	563 (100)	
	≥Graduated university	1 (1.00)	25 (15.00)	82 (49.00)	58 (35.00)	166 (100)	
	Total	22 (2.00)	165 (16.00)	470 (46.00)	375 (36.00)	1032 (100)	

여부를 확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이는 주로 여성이 식품의 주구매자이고, 20대 또는 노령자에 비해 30~40대 연령대 소비자가 식품정보 획득에 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월수입이 100~499만원인 응답자의 약 70% 이상이 전반적으로 수입식품 여부를 확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p<0.001), 이는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수입식품과 국산식품을 확인하는 경향이 크고, 유의적인 경우 경제 수준별 수입식품 확인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교육정도로는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의 응답자보다 수입식품을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고학력일수록 수입식품 여부를 확인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5).

소비자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인지도 범위는 Table 3과 같으며 설문지에서 제시한 5가지의 범위; 외국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과자, 초콜릿, 통조림 등) 및 농·임산물(콩, 깨, 마늘 등), 수입 식품첨가물(식용색소, 보존제 등), 수입 원재료(밀가루, 코코아 분말 등)로 제조한 국산 가공식품, 외국에서 제조되어서 한국 상표를 붙인(OEM 생산방식) 식품, 외국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알로에, 영양보충제품 등)에 대하여 모두 수입식품이라고 인지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21.5%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입된 식품첨가물이나 OEM 수입식품은 소비자가 수입식품인지조차 잘 모르고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식품첨가물 원산지 표시 및 OEM 수입식품의 빠른 확인이 가능한 표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Table 3. Perception of imported food concept

Contents	Frequency (N)	Percent (%)
Imported processed food+Food additive+Domestic processed food+OEM product+Health functional food	228	21.5
Processed food	156	14.7
Processed food+Domestic Processed food+OEM product+Health functional food	94	8.9
Imported processed food	93	8.7
Processed food+Health functional food	59	5.6
Processed food+OEM product+Health functional food	57	5.3
Others	375	35.3
Total	1062	100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도

수입식품 구입 시, 소비자가 가장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요인별 분석은 Table 4와 같으며 남성의 52.8%, 여성의 58.7% 모두 원산지(수출국)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유통기한>수입 및 유통회사명으로 비슷한 순서를 나타내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원산지를 가장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월수입 정도, 교육도에 있어서도 성별과 마찬가지로 원산지(수출국)에 대하여 수입식품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응답하였으며, 포장

Table 4. Consideration factors when imported foods are marketed

Characteristics		Frequency (%)					Total	χ^2 -test
		Origin	Shelf-life	Distribution company	Packaging state	Price		
Gender	Male	160 (52.80)	75 (24.74)	34 (11.21)	10 (3.30)	24 (7.92)	1 (0.03)	$\chi^2=7.855$ $df=4$ N.S
	Female	513 (58.74)	205 (23.47)	83 (9.50)	34 (3.89)	38 (4.33)	7 (0.07)	
	Total	673 (57.21)	280 (23.79)	117 (9.93)	44 (3.73)	62 (5.26)	8 (0.08)	
Age	20~29	129 (56.82)	50 (22.03)	21 (9.25)	13 (5.73)	12 (5.29)	2 (0.88)	$\chi^2=42.655$ $df=12$ $p=0.000$ (<0.001)
	30~39	228 (62.99)	71 (19.61)	35 (9.67)	13 (3.59)	13 (3.59)	2 (0.55)	
	40~49	219 (54.08)	117 (28.89)	44 (10.86)	12 (2.96)	12 (2.96)	1 (0.25)	
	≥50	97 (48.50)	46 (23.00)	21 (10.50)	8 (4.00)	25 (12.50)	3 (1.50)	
	Total	673 (56.37)	284 (23.79)	121 (10.13)	46 (3.85)	62 (5.19)	8 (0.67)	
Monthly income (1,000 won)	<100	18 (66.68)	5 (18.52)	1 (3.70)	1 (3.70)	1 (3.70)	1 (3.70)	$\chi^2=24.143$ $df=20$ N.S
	100~199	91 (47.15)	53 (27.46)	23 (11.92)	10 (5.18)	15 (7.77)	1 (0.52)	
	200~299	154 (52.56)	75 (25.60)	30 (10.24)	15 (5.12)	17 (5.80)	2 (0.68)	
	300~399	146 (55.51)	65 (24.72)	28 (10.65)	8 (3.04)	14 (5.32)	2 (0.76)	
	400~499	127 (63.18)	46 (22.89)	17 (8.46)	4 (1.99)	7 (3.48)	0 (0.00)	
	≥500	121 (63.69)	35 (18.42)	19 (10.00)	7 (3.68)	6 (3.16)	2 (1.05)	
Total	657 (56.29)	279 (23.91)	118 (10.11)	45 (3.86)	60 (5.14)	8 (0.69)	1167 (1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4 (42.43)	9 (27.27)	3 (9.09)	0 (0.00)	7 (21.21)	0 (0.00)	$\chi^2=61.312$ $df=12$ $p=0.000$ (<0.0001)
	High school	136 (45.18)	86 (28.57)	38 (12.63)	10 (3.32)	28 (9.30)	3 (1.00)	
	University	392 (60.59)	149 (23.03)	56 (8.65)	29 (4.48)	17 (2.63)	4 (0.62)	
	≥Graduated university	120 (65.93)	32 (17.58)	17 (9.34)	6 (3.30)	6 (3.30)	1 (0.55)	
	Total	662 (56.92)	276 (23.73)	114 (9.80)	45 (3.87)	58 (4.99)	8 (0.69)	

상태 및 가격은 수입식품을 구입할 경우 크게 고려하지 않는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Han과 Kim(5)이 1999년도에 조사한 수입식품 구입 시 선택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자신이 유통기간과 가격, 구입경험을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응답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요인에서 원산지(수출국)를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응답한 이유로 최근 중국의 멜라민을 포함한 수입식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에 따라 소비자들의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수입식품의 위해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가장 위대한 요인으로 남성 31.6%, 여성 37.5%는 유해한 식품첨가물의 미확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의구심> 우리 정부의 안전관리 미흡> 저장 및 유통과정 불신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p < 0.05$),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 요인의 원인이 식품첨가물의 미확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성별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식품첨가물의 미확인을 수입식품의 위해 요인 중 가장 큰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특정국가(예.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의구심을 응답하였지만, 30대에서는 우리 정부의 안전관리 미흡을 응답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다($p < 0.05$). 월수입 정도의 경우도 100만원 이상의 응답자의 약 30% 이상이 유해한 식품

첨가물의 미확인을 수입식품의 위해 요인 중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교육정도에서는 유해한 식품첨가물의 미확ين> 특정국가(예.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의구심> 우리 정부의 안전관리 미흡의 순으로 답하였으며, 특히 교육정도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5$). 모든 경우에서 유해한 식품첨가물의 미확인이 수입식품의 위해 요인 중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유해한 식품첨가물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다.

수입식품 안전문제 관련 소비자 행동요인 분석

수입식품의 안전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취하는 행동에 대한 요인별 분석은 Table 6과 같으며 남성의 46.0%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무조건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53.0%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본 후에 결정한다고 응답하여($p < 0.001$) 성별에 따른 수입식품의 안전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취하는 행동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약 50% 이상의 응답자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본 후에 결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의 응답자 46.0%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무조건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연령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50대 이상의 경우, 수입식품 안전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신하는 것으로 사료

Table 5.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imported food

Characteristics		Frequency (%)					Total	χ^2 -test
		Unconfirmed food additive	Distrust of specific country	Uncertainty of shelf-life	Distrust of storage and management distribute process	Unsatisfied of government for safety		
Gender	Male	92 (31.61)	77 (26.46)	21 (7.22)	41 (14.09)	58 (19.93)	2 (0.69)	$\chi^2=1233.758$ $df=5$ $p=0.03$ (<0.05)
	Female	331 (37.53)	187 (21.20)	48 (5.44)	144 (16.33)	172 (19.50)	0 (0.00)	
	Total	423 (36.06)	264 (22.51)	69 (5.88)	185 (15.77)	230 (19.61)	2 (0.17)	
Age	20~29	81 (36.98)	57 (26.03)	8 (3.65)	34 (15.53)	39 (17.81)	0 (0.00)	$\chi^2=31.514$ $df=15$ $p=0.0075$ (<0.05)
	30~39	148 (40.44)	63 (17.21)	17 (4.64)	59 (16.12)	77 (21.04)	2 (0.55)	
	40~49	134 (33.59)	97 (24.31)	24 (6.01)	63 (15.79)	81 (20.30)	0 (0.00)	
	≥ 50	59 (30.10)	51 (26.02)	23 (11.73)	29 (14.80)	34 (17.35)	0 (0.00)	
Total	422 (35.76)	268 (22.71)	72 (6.10)	185 (15.68)	231 (19.58)	2 (0.17)		
Monthly income (1,000 won)	<100	8 (30.77)	7 (26.92)	4 (15.39)	5 (19.23)	2 (7.69)	0 (0.00)	$\chi^2=27.356$ $df=25$ N.S
	100~199	74 (39.57)	34 (18.18)	8 (4.28)	29 (15.51)	42 (22.46)	0 (0.00)	
	200~299	111 (38.95)	63 (22.11)	24 (8.42)	39 (13.68)	47 (16.49)	1 (0.35)	
	300~399	78 (30.00)	71 (27.31)	14 (5.38)	44 (16.92)	52 (20.00)	1 (0.39)	
	400~499	68 (33.83)	45 (22.39)	10 (4.97)	38 (18.91)	40 (19.90)	0 (0.00)	
	≥ 500	76 (39.17)	40 (20.62)	10 (5.16)	27 (13.92)	41 (21.13)	0 (0.00)	
Total	415 (35.99)	260 (22.55)	70 (6.07)	182 (15.79)	224 (19.43)	2 (0.17)		
Education level	\leq Middle school	5 (15.16)	12 (36.36)	4 (12.12)	6 (18.18)	6 (18.18)	0 (0.00)	$\chi^2=39.322$ $df=15$ $p=0.0006$ (<0.05)
	High school	90 (30.10)	78 (26.08)	29 (9.70)	44 (14.72)	58 (19.40)	0 (0.00)	
	University	251 (39.41)	128 (20.09)	30 (4.71)	106 (16.64)	122 (19.15)	0 (0.00)	
	\geq Graduated university	66 (35.29)	46 (24.61)	7 (3.74)	26 (13.90)	40 (21.39)	2 (1.07)	
	Total	412 (35.65)	264 (22.84)	70 (6.05)	182 (15.74)	226 (19.55)	2 (0.17)	

Table 6. Consumer's attitude when imported food safety problem occurs

Characteristics		Frequency (%)				Total	χ^2 -test
		Never have eaten it	Choosing after knowing well	Purchase without specific information	No interests on it		
Gender	Male	124 (46.00)	111 (41.00)	20 (7.00)	16 (6.00)	271 (100)	$\chi^2=2.845$ $df=3$ $p=0.000$ (<0.001)
	Female	315 (41.00)	413 (53.00)	27 (4.00)	17 (2.00)	772 (100)	
	Total	439 (42.00)	524 (50.00)	47 (5.00)	33 (3.00)	1043 (100)	
Age	20~29	84 (43.00)	98 (50.00)	5 (2.00)	10 (5.00)	197 (100)	$\chi^2=33.922$ $df=9$ $p=0.000$ (<0.0001)
	30~39	116 (36.00)	182 (57.00)	12 (4.00)	8 (3.00)	318 (100)	
	40~49	157 (44.00)	179 (50.00)	12 (4.00)	7 (2.00)	355 (100)	
	≥ 50	82 (46.00)	71 (39.00)	19 (10.00)	9 (5.00)	181 (100)	
	Total	439 (42.00)	530 (50.00)	48 (5.00)	34 (3.00)	1051 (100)	
Monthly income (1,000 won)	<100	13 (52.00)	10 (40.00)	2 (8.00)	0 (0.00)	25 (100)	$\chi^2=11.289$ $df=15$ N.S
	100~199	73 (44.50)	74 (45.00)	11 (6.50)	6 (4.00)	164 (100)	
	200~299	103 (40.00)	130 (51.00)	13 (5.00)	11 (4.00)	257 (100)	
	300~399	92 (39.00)	124 (53.00)	9 (4.00)	9 (4.00)	234 (100)	
	400~499	73 (42.00)	88 (51.00)	9 (5.00)	3 (2.00)	173 (100)	
	≥ 500	75 (43.00)	91 (52.00)	4 (2.00)	5 (3.00)	175 (100)	
Total	429 (42.00)	517 (50.00)	48 (5.00)	34 (3.00)	1028 (100)		
Education level	\leq Middle school	18 (64.00)	8 (29.00)	2 (7.00)	0 (0.00)	28 (100)	$\chi^2=29.926$ $df=9$ $p=0.000$ (<0.001)
	High school	121 (44.00)	118 (43.00)	22 (8.00)	14 (5.00)	275 (100)	
	University	232 (41.00)	294 (52.00)	19 (4.00)	15 (3.00)	560 (100)	
	\geq Graduated university	59 (36.00)	99 (60.00)	4 (2.00)	4 (2.00)	466 (100)	
	Total	430 (42.00)	519 (50.00)	47 (5.00)	33 (3.00)	1029 (100)	

된다. 월수입 정도의 경우도 100~500만원 이상의 응답자 약 50%가 모두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본 후에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교육정도의 경우 증줄 이하의 64.0%의 응답자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무조건 먹지

Table 7. Person who have responsibility for problems in imported foods safety management

Characteristics	Frequency (%)				Total	χ^2 -test	
	Importers	Government	Products	Distributors			
Gender	Male	58 (21.17)	149 (54.38)	51 (18.61)	16 (5.84)	274 (100)	$\chi^2=4.794$ $df=3$ N.S
	Female	161 (19.87)	448 (55.31)	175 (21.61)	26 (3.21)	810 (100)	
	Total	219 (20.20)	597 (55.07)	226 (20.85)	42 (3.88)	1084 (100)	
Age	20~29	32 (15.84)	117 (57.92)	48 (23.76)	5 (2.48)	202 (100)	$\chi^2=14.500$ $df=9$ N.S
	30~39	60 (18.07)	189 (56.93)	73 (21.99)	10 (3.01)	332 (100)	
	40~49	85 (22.97)	201 (54.32)	63 (17.03)	21 (5.68)	370 (100)	
	≥50	43 (22.75)	95 (50.27)	42 (22.22)	9 (4.76)	189 (100)	
	Total	220 (20.12)	602 (55.08)	226 (20.68)	45 (4.12)	1093 (100)	
Monthly income (1,000 won)	<100	0 (0.00)	17 (68.00)	8 (32.00)	0 (0.00)	25 (100)	$\chi^2=24.535$ $df=15$ N.S
	100~199	37 (21.14)	96 (54.86)	31 (17.71)	11 (6.29)	175 (100)	
	200~299	58 (21.72)	143 (53.56)	49 (18.35)	17 (6.37)	267 (100)	
	300~399	48 (19.43)	133 (53.85)	59 (23.89)	7 (2.83)	247 (100)	
	400~499	44 (24.58)	92 (51.40)	38 (21.23)	5 (2.79)	179 (100)	
	≥500	27 (15.34)	107 (60.80)	37 (21.02)	5 (2.84)	176 (100)	
Total	214 (20.01)	588 (55.01)	222 (20.77)	45 (4.21)	1069 (1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 (10.72)	17 (60.71)	8 (28.57)	0 (0.00)	28 (100)	$\chi^2=14.414$ $df=9$ N.S
	High school	63 (22.41)	136 (48.40)	64 (22.78)	18 (6.41)	281 (100)	
	University	117 (20.18)	329 (56.72)	117 (20.17)	17 (2.93)	580 (100)	
	≥Graduated university	32 (18.08)	105 (59.32)	33 (18.64)	7 (3.96)	177 (100)	
	Total	215 (20.16)	587 (55.07)	222 (20.83)	42 (3.94)	1066 (100)	

않는다고 하였으며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본 후에 결정한다고 응답하여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무조건 먹지 않는다는 행동보다는 잘 알아본 후에 결정하는 행동을 취함을 알 수 있었다($p<0.001$). 성별, 연령별, 월수입 정도 및 교육정도 등의 모든 요인에서 약 92% 이상의 응답자가 안전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조건 먹지 않거나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본 후에 결정한다고 응답하여 안전문제에 대하여 관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책임소지에 대한 요인별 분석은 Table 7과 같으며, 남성 54.4%와 여성 55.3% 모두 안전관리를 잘 하지 못한 우리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에 따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의 50% 이상의 응답자가 안전관리를 잘 하지 못한 우리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30대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한 외국 생산국 및 생산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0대, 50대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차이를 보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월수입 정도와 교육정도의 경우 약 50% 이상의 응답자가 안전관리를 잘 하지 못한 우리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수입식품에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입식품 중 우선적으로 안전관리 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어린이 먹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3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불법 유통수입식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5%였다(Fig. 1). 어린이 먹거리에 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소비자의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신,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수입식품 정보 제공에 따른 인식도

정부가 제공하는 수입식품의 안전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에 대하여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응답자가 53.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26.2% 응답자는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였고, 16.0%는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Fig. 2). 소비자가 가장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는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안전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높았으므로 정부는 보다 정확하고, 쉬운 수입식품

Fig. 1. The most important items of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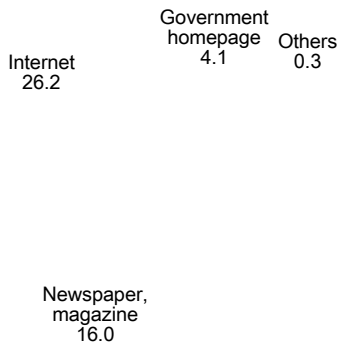


Fig. 2. The routes of finding imported foods safety information.

Table 8. Visiting experience and frequency of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website or non-visiting

Response	Frequency (N)	Percent (%)
No	741	70.50
Yes	310	29.50
Sometimes	104	34.10
When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is occurred	169	55.41
Often	28	9.18
Daily	4	1.31
Total	1051	100

의 안전 정보를 방송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응답률이 낮았던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정책메일 등의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비자가 자주 수입식품의 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9.5%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해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foodnara.go.kr>)에 [식품nara]라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식품 뿐만 아니라 식품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정보 중에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이용률이 낮다면 그 효과는 기대보다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주기를 조사한 결과 55.4%의 응답자가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홈페이지를 방문한다고 응답하였고 34.1%의 응답자는 가끔 방문한다고 응답하여 소비자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보를 위해 자주, 매일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점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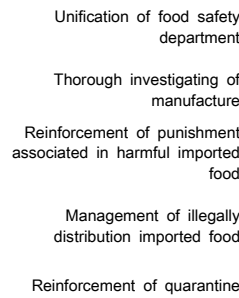


Fig. 3. Factors for safety improv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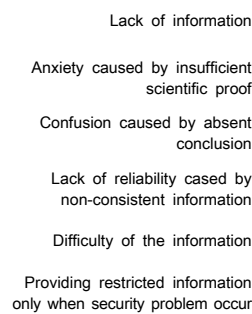


Fig. 4. Reason for non-satisfaction in safety information.

대하여 수입 시, 검역 강화(30.4%)> 불법 유통 수입식품 관리(23.5%)> 유해한 수입식품 관련 업자 처벌 강화(15.0%)> 현지 제조회사 조사 철저(9.6%)> 식품안전관리 부서의 일원화(7.1%)의 순서로 검역 강화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Fig. 3). 수입식품 수입 시, 보다 확실하고 엄격한 검역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수입식품 안전정보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3%가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18.1%의 응답자가 정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 16.0%의 응답자가 일관성 없는 정보로 신뢰성 부족을 응답하였다(Fig. 4). 정보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방송매체, 인터넷 매체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경로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꾸준히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안전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수입식

품 안전관리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서울, 용인, 천안,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강원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10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lus 8.0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수입식품 확인과 범위에 대한 인식도,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 12가지 문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수입식품 구입 시, 수입식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경우는 35.7%,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원산지(56.7%)였으며, 수입식품 위해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유해한 식품첨가물의 미확인(35.7%)이었다. 안전문제 발생 시,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본 후에 구입을 결정하는 경우는 50.0%였으며, 방송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53.3%)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수입 시 검사 강화(30.4%)였고, 제한적 정보 제공(42.3%)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전반적인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았으며, 이에 따른 엄격한 검사관리 기준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지원(08052식품안070)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문 헌

1. Lee HH, Gang GL, Cho BS, Ha DR, Kim ES. 2006. A survey

- on the safety of the imported foods in Gwangju. *J Fd Hyg Safety* 21: 129-135.
2. 안희옥. 2004. 광주 시내 학교 주변 유통식품 모니터링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 8: 2677-2678.
 3. 김기준. 2005. 식품안전성검사 결과 고찰. 충남보건환경연구원보 15: 169-170.
 4.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2007. 식품의약품안전청.
 5. Han JI, Kim SA. 1999. Recognition level of imported food and its correlation with discrimination ability.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4: 95-102.
 6. 이서래. 1994.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농촌생활과학 춘계호, p 17-24.
 7. Chang WS, Heo SW. 1997. The hazard problem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Kor J Intl Agric* 10: 40-49.
 8. Kim HJ, Kim MR. 2003. Consumer's awareness and information needs towards food hygiene (I): Focused on pesticide residues. *J Korean Home Econ* 41: 15-26.
 9. Kim HJ, Kim MR. 2002. Consumer's awarenes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toward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J Korean Home Econ* 40: 73-84.
 10. Bahk KJ, Chin SJ, Park KH, Hong CH, Kim JW. 2003. Survey on the foodborne illness experience and awareness of food safety practice among Korean consumers. *J Fd Hyg Safety* 18: 139-145.
 11. Han MY, Ahn MS. 1998. A study on the purchases action of processed foods and the recognition for food additives of urban housewives. *Korean J Dietary Culture* 13: 119-126.
 12. Choi JS, Chun HK, Hwang DY, Nam HJ. 2005. Consumer perceptions of food related hazards and correlates of degree of concerns about food. *J Korean Soc Food Sci Nutr* 34: 66-74.

(2009년 6월 15일 접수; 2009년 10월 11일 채택)